

# KTX 혁신역 신설 공론화 시급

###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5분발언에서 “전북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방법”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 및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은 19일 시의회 제3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 및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과 관련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

으며 도내에서도 KTX 혁신역사 신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TX 세종역의 경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되지 못했다”며, “KTX 세종역 신설과 혁신역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세종역 신설을 계기로 호남선의 오송역 우회노선에 대해 단거리 호남선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전북 KTX 혁신역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KTX 혁신역 신설’에 대해 세가지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먼저,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최근 일부 정치권과 서울 패권주의에 빠진 금융기관 및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KTX 혁신역 신설이야말로 그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북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익산이나 전주 지역

이 아닌 시·군 주민들의 경우 KTX 혁신역과 전주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 KTX가 고속버스와 비교해 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역사에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노선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환승 후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어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혁신역 신설인지로 거론되고 있는 김제 부용역의 경우 새만금 동서 2축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집적화된 철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효철 기자

## “고층아파트 화재대비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급”

###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5분발언서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 많아 피해 클 것 예상”

고층아파트의 화재대비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은 19일 시의회 제3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고

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갖추고 있다. 즉 3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형 화재의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된 방호된 피난형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사이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가사다리 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구역인 화재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된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발생에 따른 피난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규모, 층수 이상의 건물

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개소미터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설치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실내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차게 되는 데 이럴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로부터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없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발코니로 피난하고 해도 고가사다리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향식 피난구는 안방 발코

니나 세탁실, 아동방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화재발생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능동적인 피난설비다”며, “경량칸막이의 경우 세대별 물건전치, 불법전용시 피난이 어려울 경우도 있어 하향식피난구 설치야말로 확실한 피난방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날로 고층화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의 능동적인 탈출과 피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건축주의를 통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며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전주시를 만들도록 다함께 애써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타시도의 경우 조례와 건축심의 등을 통해 체류형 대피공간보다 능동적인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동네 미세먼지 정보 실시간 확인

### 전주시·시의회·KT, ICT 기술 활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협약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KT가 손을 맞잡고 도시 전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미세먼지 통합관리로 나선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KT는 19일 전주시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측정망을 전주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고, 기상자료와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를 접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 기관들은 실무 협의회 등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망의 단계적 확대 △통합환경 플랫폼 구축 △미세먼지 민감계층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폭염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문제에 대해 ICT 기술을 접목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약

속했다. 특히, 시와 KT는 이날 협약에 따라 기상 관측자료와 유동인구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 지역별 측정망의 고른 분포와 공업지역, 대규모 개발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를 찾아 총 40여개소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소음, 온도, 습도 등 대기질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취약지역 등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도로 청소차량 운용 및 지도단속 업무 등 각종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병술 전주시의장은 “최근 일상화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7기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숨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주시, 전주시의회, KT가 함께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구축하게 될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탄소융합기술원, 카본 컴포ジット 투어 참가

탄소산업 중심지인 전주에 세계 11개국, 40여명의 탄소 기업인 및 전문가들이 방문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탄소페스티벌(International Carbon Festival) & JEC Asia 2018 행사에 참가한 11개국 40여명의 탄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은 탄소페스티벌 참관 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현장 및 기업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 카본 컴포ジット 투어(Carbon Composite Tour)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적인 복합재 그룹인 JEC와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올해에는 40개국, 200여개 기업, 7,000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아시아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로 자리매김했

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JEC 그룹은 이번 국제탄소페스티벌에 참가한 독일, 프랑스, 필리핀,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총 11개국의 탄소산업 기업인과 전문가 40명을 구성해 페스티벌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과 부안 등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카본 컴포ジット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컴포ジット 투어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대표적인 탄소연구개발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탄소 전문기업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둘러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심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국내 탄소산업 기술력과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의 탄소기업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송효철 기자

## 비나텍, 8년째 김장김치 담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

팔복동 소재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슈퍼커패시터) 제조업체 비나텍(대표 성도경)은 직원들이 손수 담은 김장김치를 덕진구청(구청장 양연수)에 전달했다. 비나텍은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을 지향하며 2011년 전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부터 8년째 김장봉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김치10kg 240박스(박)와 더불어 백미10kg 220포(1,7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비나텍(주) 성도경 대표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힘이나마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100여명 비나가족이 정성껏 담은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비나텍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나눔회 봉사단(회장 한상진)”을 만들어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사회봉사시설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비나텍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8년째 김치를 전달해주고 있어 김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비나텍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경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에 공동공갈·상해 적용

동급생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해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14)군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에게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1~3시 사이 C(14)군으로 부터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PC방에 있던 C군을 공원으로 끌고 가 전자담배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 전 착용한 베이직색 패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이 지난 11일부터 베이직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C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라며 “감재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벌인 B양 등도 A군과 같은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패딩을 바꿔입은 방법이 자의적인지 강제적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군으로 부터 패딩을 18일 임의제출 받아 입수하고 유족에게 환부했다. /뉴시스

## 신용서포터즈 출범... 전주시, 사람중심 금융복지실현도시를 꿈꾼다

# 취약계층 가계부채 해결 · 복지서비스 연계 회생 기회 제공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신민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이다. 이에 전주시는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 출범한 ‘전주시 신용서포터즈’ 역시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전주시 신용서포터즈는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을 명예단장으로, 시 산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캠코가 운영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위한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및 제도 설명회가 19일 전주시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영원 전주시 부시장이 관계자들과 손가락 히트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복지상담소로 부실채권 소각 등 통해 시민 구제 서민금융복지 지원근거 마련 · 채무대리인제 신설

대한 직접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액 총 21억여 원을 9000여만원으로 조정해 채무를 완전 탕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가운데 26명의 100만원 이하 소액잔여채무액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활용해 직접 탕감해주며 95.5%의 감면율을 달성했다. 나아가 전주시는 상담소와 종교계와 빛 탕감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는 주빌리은행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 8700만원을 활용해 약탈적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받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담소 개소 이후 약 2년간 채무조정과 채무상담 등 총 3,129건의 맞춤형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탕감 및 25억 여원의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154명의 시민을 빛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

▲전주시, 튼튼하고 촘촘한 서민 금융복지 정착  
전주시는 지난해 1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 규정,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가능 규정, 운영의 위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체계의 구축 관련 규정을 명시하며 체계적인 서민금융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관련 규정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채무대리인제도’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시민들과 금융취약계층, 자활센터 및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재무관리, 가정경제코칭 등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 시민강좌도 연 4회에 걸쳐 운영 중이다. 그간 건전한 가계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채권자와 금융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전주시는 이를 지난 민선6기 이후 채무자와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까지 가져왔다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빛을 쬐다고 해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채권자도 빛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범죄자로 내몰거나 협박할 권리를 가지지 못 한다”면서 “빛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지역금융권이 함께 힘을 합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가계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형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서비스 ‘금융복지상담소’  
앞서 전주시는 빚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채무조정과 건전한 재무설계, 취업상담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은 물론 임차보증금 저금리 대출전환안내 등 주택문제 해결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며 연구자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고리 사채와 채권추심을 인권문제로 다뤄야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9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를 개설했다. 상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연계, 서민금융지원 안내 등의 채무조정상담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빛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 46명